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의의와 한계

김정열*

목 차

- I. 머리말
- II. '공정'의 전개
- III. '공정'의 지향과 문제
- IV. 맺음말

〈국문초록〉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국문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원하고 발전하여 초기 왕조국가로 연결되었는가를 탐구할 목적하에 진행된 대형 국책 연구과제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우리 학계는 일찍부터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대체로 중국과 한국의 '역사전쟁'이라는 다소 편향되고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 글은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추진 과정과 그 전체적인 내용 및 주요 지향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그것이 21세기에 들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근대 이래의 역사적 질곡과 태생적인 분열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학술 프로젝트이며, 한족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국가의 통합과 한족의 통치를 정당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화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유목적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학술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학문외적인 지향으로 인해 과거를 왜곡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핵심어: 중화문명탐원공정, 중국, 문명, 고고학, 중화민족, 다원일체, 황제, 초기국가

I. 머리말

2013년 8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1회 세계고고학포럼(Shanghai Archaeology Forum)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의 고고학자 약 180명이 모여 4일 동안 각국의 최신 고고학 연구성과를 발표한 이 포럼에서, 주최 측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연구성과 8가지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독일, 네덜란드, 페루 등 여러 국가의 대학이나 기관이 수행한 연구업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때 선정된 연구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하 ‘공정’으로 약함)이다).

‘공정’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된 국가 지원 연구과제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기원전 841년 이전의 중국 초기 왕조국가, 즉 하, 상, 주 삼대(三代)의 절대연대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등의 주도하에 수행된 이 사업은 고고학, 역사학, 천문학 및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로, 그 연구 결과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는 이를 통하여 하상주의 절대연대를 확정하고 하상주의 역사와 중국문명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 「中華文明探源工程入選世界重大考古研究成果」, 『中國新聞網』 2013년 8월 23일.
<http://www.chinanews.com/cul/2013/08-23/5199177.shtml>.

‘공정’은 하상주단대공정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 왕조의 실재(實在)를 인정하는 위에, 주로 하 왕조 이전 중국 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한 것이다.³⁾ ‘공정’의 정식 명칭은 ‘중화문명의 기원과 초기 발전 연구[中華文明起源與早期發展研究]’이며, 과기부(科技部)의 지원하에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쳐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고고문박학원(考古文博學院) 등 중국 굴지의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공정’이 다루는 주제는 말 그대로 ‘중국문명의 기원과 성립에 대한 연구’이다. ‘공정’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학계 역시 일찍부터 ‘공정’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정을 한국과의 ‘역사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다분히 선정적인 차원으로 비평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공정’이 다 마무리되기 이전 서둘러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⁴⁾ 그러나 ‘공정’이 다 마무리되고 그 성과가 속속 소개되고 있는 지금에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시들해진 것을 반영하듯 ‘공정’의 성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대대적 지원하에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 ‘공정’의 성과는 중국인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공정이 미처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세계고고학포럼 포럼이 주목하여야 할 연구성과로 ‘공정’을 지목함으로써, 이 포럼을 기획한 주체 중 하나가 중국사회과학원이고, ‘공정’의 주요 수행 주체 가운데 하나가 중국사회과학원이었으며, 개최 장소와 후원자가 상하이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분히 주최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
- 2) 박양진, 「중국 역사공정의 비판적 검토 - 하상주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82, 2008, 301~307쪽.
 - 3) 王巍, 「我親歷的中華文明探源工程」, 『光明日報』 2020년 10월 25일.
 - 4) 정원철,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 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7~29쪽 참조. ‘공정’의 성과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검토로는 박양진 등,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 현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08에 수록된 4편의 논문이 있다.

‘공정’의 성과가 향후 국제학계에도 어느 정도의 학술적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고사 또는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면, ‘공정’의 연구성과와 그 대강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느 연구자가 이미 지적했듯이, 공정이 중국 사회의 현실적 필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중화’에 걸맞은 역사상을 모색하면서 대국으로의 비상을 준비하는 현대 중국의 비전을 이해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⁵⁾ 이 간단한 글에서 저 방대한 ‘공정’의 전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공정’이 마무리된 지금 ‘공정’의 전반적 내용과 지향점을 개괄하여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공정’의 전개 과정과 그 지향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공정’의 전개

중국에서 역사 문제를 주제로 한 국가급 연구과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은 하상주단대공정이 5년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전후 15년⁶⁾에 걸친 장기 과제였다. ‘공정’은 예비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4단계를 거쳐 완료되었는데, 각 단계가 모두 동일한 연구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며, 진행과정에 따라 그 주요 방향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2001년 연말부터 2003년 연말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다. 이 단계의 연구는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규명하려는 ‘공정’의 실행 가능

5) 전인갑, 「현대 중국의 지식 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역사비평』 82, 2008, 269~270쪽.

6) ‘공정’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단되었다. 따라서 전후 15년 동안 실제 연구에 투입된 기간은 13년이다.

성을 검토하여, 그것이 정식 연구 프로젝트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는 목적을 가졌다. ‘공정’이 다루게 될 시간과 공간 범위가 매우 넓었고, 참여하게 될 연구자의 전공 분야 역시 다수에 이르렀으며, 연구과제의 내용이 복잡하여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과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므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우선 예비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예비연구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1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 1) 고사(古史) 전승과 하상(夏商) 관련 문헌 연구
- 2) 상고시기 예제(禮制) 연구
- 3) 고고 유존의 연대 측정
- 4) 고고학문화 계보 연구
- 5) 고환경 연구
- 6) 초기 금속 야주(冶鑄) 기술 연구
- 7) 문자와 각획부호[刻符] 연구
- 8) 상고시기 천문현상[天象]과 역법 연구
- 9) 취락 형태에 반영된 사회 구조
- 10) 중외(中外) 고대문명 기원의 비교 연구

예비연구에서 제시된 과제의 내용을 보면, 이 단계에서는 주로 고고학 문화의 계보와 연대, 중국 상고사 관련 전래문헌, 환경, 기술, 문자, 취락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연구 등 고대문명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검토함으로써 중국 고대문명의 기원과 발전 맥락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국가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예비연구의 사업 완료 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0여 명인데, 이들 가운데는 순수한 의미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연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다⁷⁾. 이것은 ‘공정’이 다루는 주제가 주로 고고학의

7) 中國國家文物局 홈페이지. http://www.sach.gov.cn/art/2008/4/2/art_1662_112328.html.

연구분야에 속하지만, 그밖에 역사학은 물론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및 금속공학 등의 자연과학적 연구 수단을 두루 동원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여 ‘공정’의 연구 결과에 ‘과학적’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예비연구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였지만, 앞으로 ‘공정’의 목적이 중국의 국가 기원과 그 성립 과정을 최신 연구기법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두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제1단계 연구

약 2년간의 예비연구를 통해 각 과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공정’이 표방한 기본적 연구 방침과 초보적인 성과를 타당하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시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이자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中央精神文明建設指導委員會) 주임이었던 리창춘(李長春)의 지시에 따라 ‘공정’을 즉각 ‘십오(十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계획, 2001~2005년)’의 정식 연구 프로젝트로 채택하였다. 2004년 여름 ‘공정’ 제1단계 연구가 시작될 때는 ‘십오’ 기간 중이었으므로 ‘공정’ 제1단계 연구는 일단 ‘십오’가 끝나는 2005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도록 기획되었다.

제1단계 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베이징대학 고고문박학원이 주도하고, 여기에 허난성문물고고연구소(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산시성(山西省)문물고고연구소, 정저우시(鄭州市)문물고고연구소, 베이징과기대학(北京科技大學), 정저우대학(鄭州大學) 등이 참여하였다. ‘공정’의 제1단계 사업은 전체 사업 시행 기간이 2년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비교적 좁게 설정하였다. 일단 시간 범위는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로 하고, 공간 범위는 ‘중원(中原)’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제1단계에서 설정된 과제는 아래의 5가지이다.

- 1) 기원전 2500년~기원전 1500년 중원 지역 관련 고고학문화 시기구분, 계보의 정

밀 연대 측정

- 2) 기원전 2500년~기원전 1500년 중원 지역의 자연 환경 연구
- 3) 기원전 2500년~기원전 1500년 중원 지역 취락 형태에 반영된 사회구조 연구
- 4) 기원전 2500년~기원전 1500년 중원 지역의 경제, 기술발전 상황 연구
- 5) 종합과 총결: 기원전 2500년~기원전 1500년 중원 지역 문명 형태 연구

제1단계 연구의 사업 명칭은 ‘기원전 2500년~1500년 중원 지역 문명 형태 연구[公元前2500-公元前1500年中原地區文明形態研究]’이다. 설정된 시기를 대상으로 주요 유적에 대한 정밀연대측정과 함께 자연환경의 변화와 기술·경제 발전, 사회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중원의 문명 발전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잡아보겠다는 취지가 사업과 과제의 명칭에 투영되어 있다.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의 약 1000년간은 전래문헌에 기록된 이른바 오제(五帝)의 시대부터 상(商) 왕조 전기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크게 보아 중국의 고대 왕권 및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때이다. 특히 기원전 2500년은 하상주단대공정에서 하 왕조의 존속기로 상정한 ‘기원전 2070년~기원전 1600년’보다 약 4~500년 이른 시점, 즉 중국의 신석기·청동기문화 과도기에 해당하는 이른바 ‘룡산문화기(龍山文化期)’의 시작 시점에 해당한다. 또한 공간 범위로 설정된 이른바 ‘중원’은 황하 중·하류 일대의 비교적 넓은 충적평원 지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중원 일대는 하를 비롯한 중국의 초기 왕조들이 성립하고 성장해 나간 주요 무대이다.

‘공정’을 주도한 수석전문가 왕웨이(王巍)는 짧은 사업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그동안 고고학적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적되어 온 중원을 하나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여기에 연구를 집중하였다고 하지만,⁸⁾ 사실 이곳은 다수의 중국 전래문헌이 중국 초기 왕조국가의 탄생지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기원전 2500년~1500년’과 ‘중원’을 시공 범위로 설

8) 王巍, 앞의 기사, 2020년 10월 25일.

정한다면, 중국 고고학계는 사실 ‘공정’ 이전부터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와 연구성과를 쏟아오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허난성 옌시시(偃師市) 얼리터우(二里頭)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얼리터우 유적에서는 대형 지상건물 유존과 판축 담장[圍牆]이 발견되었으며, 그 밖에도 청동 제사용기, 의례용 옥기 등이 대량 출토된 바 있다.

이 유적의 위치는 중국 고대 문헌자료에서 하 왕조의 도읍지가 있었다고 지목하는 곳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공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학계는 이 유적을 하 왕조의 도읍 유적으로 공인한 상태였다. 하상주단대공정 역시 얼리터우 유적을 하 왕조의 도읍으로 간주하고, 이를 토대로 하 왕조의 실재(實在)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얼리터우 유적은 기원전 1900년경에 형성되어 기원전 1600년경까지 번영하였기 때문에, 겨우 하상주단대공정에서 설정한 하 왕조의 존속기간 ‘기원전 2070년~기원전 1600년’ 중에서도 그 후반부와 중첩될 뿐이었다.

즉 설령 얼리터우가 하 왕조의 도읍이었다고 인정할지라도, 그 전반부의 도읍은 얼리터우 이외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 후보지는 시간적으로 얼리터우 유적보다 앞서야 하고, 거대한 건물 유존이나 대형 무덤 또는 소수의 권력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위신제가 출토된 바가 있는 유적이 될 터인데, 마침 중원 지역에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될만한 유적이 몇 군데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면 산시성의 타오쓰(陶寺) 유적, 허난성의 왕청강(王城崗) 유적과 신자이(新砦) 유적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유적에서는 판축 토성은 물론 청동제 도구 혹은 의례용 옥기 등이 출토된 바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타오쓰, 왕청강, 신자이 등 유적이 구체적으로 언제 형성되었고 또 언제 폐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유적을 건설한 주인공들이 얼리터우를 건설한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밝히는 데 놓여 있었다. ‘공정’의 제1단계 연구에서 중원 지역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목적은 얼리터우 유적과 타오쓰, 왕청강, 신자이 등 유적을 두고 그들의 시간적 위치와 문화적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이들 유적을 연속적 맥락에서 포착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국

가 하 왕조의 성립 과정과 동력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정’ 제1단계의 명칭인 ‘기원전 2500년~1500년 중원 지역 문명 형태 연구’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공정’ 1단계는 위에 언급한 주요 유적에 대한 재조사와 발굴에 집중되었으며, 다양한 자연과학적 수단을 통해 유적의 환경, 취락 형태, 생업 등을 밝히는 데 중점이 놓여졌다. 그 결론은 기원전 2500년 이래 특히 황허강 중류 일대에서 농업작물이 다양화되고 생산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가 분업화와 계층화 과정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집단이 출현하고, 이들이 상당한 규모의 영역과 인구를 통치하는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제2단계 연구

제1단계 연구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공정’을 제11차 5개년계획 즉 ‘십일오(十一五)’의 계속지원사업[支撐項目]으로 선정하고 ‘공정’ 제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그 전반기(2006년~2008년)의 연구성과를 검토한 후 후반기의 지원 여부는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다.

제2단계 ‘공정’의 연구 수행 방법은 역시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로서 종전과 차이가 없지만, 연구내용에는 이전과 다른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변화의 골자는 연구의 시간적 상한선을 제1단계 연구보다 1000년 앞당겨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로 설정한 것과, 대상 공간을 중원에서 황허강 상·중·하류 지역, 그 범위를 양쯔강 중하류 지역과 시라오허(西遼河) 유역까지, 대체로 보아 전 중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각 지역 고고학 문화의 연대, 자연환경, 경제기술과 사회 및 정신문화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처럼 제2단계 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제외하면, 연구의 중점 대상은 대체로 제1단계 연구를 계승하였지만 약간의 차이도

보인다. 제2단계에서 설정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이 4가지이다.

- 1)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각 지역 고고학문화 계보의 정밀 연대 측정
- 2)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각 지역 자연환경의 변화
- 3)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각 지역 경제기술의 발전
- 4)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각 지역 사회와 정신문화의 발전

제1단계에 비하면 제2단계에서는 취락 형태에 반영된 사회구조 연구는 제외되고 대신 정신문화에 관한 연구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기원전 2500년 이전이 되면 인상적인 대규모 성곽취락이 드문 반면 양쯔강 중·하류 일대와 랴오허강 일대에서 대형 제사유구가 다수 발견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역시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앞선 단계의 연구대상이 기원전 2500년경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영역과 인구를 통치한 정치체(이것을 초기국가로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가 출현한 흔적이 보이므로, 중국문명은 그보다 앞선 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문명은 중원만의 독자적 발전 과정에서 성립되었다기보다는, 북으로는 랴오허강 일대에서 남으로는 양쯔강 일원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각각 성립된 지역문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후자는 일찍이 쑤빙치(蘇秉琦)가 제시한 이른바 ‘구계문화유형론(區系文化類型論)⁹⁾의 구상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 요지는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중국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고 발전하였지만, 상호 간에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점차 고도화되고, 그 결과로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문명이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또 하나의

9) 蘇秉琦·殷璋璋, 「關於考古學文化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10~17쪽.

문제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왜 각 지역의 문명은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절멸되었으며, 또 중원의 지역문명은 중국 초기 왕조 하, 상의 성립까지 순조롭게 계승되었는가, 왜 중국 역사에서는 항상 중원 지역에서 성립된 왕조가 다른 지역으로 선진적인 문화를 전파하고 다른 지역은 그에 영향을 받게되었는가가 그것이다.

‘공정’의 제2단계 연구에서 특히 자연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중국문명은 크게 보아 기원전 2000년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 두 개의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먼저 기원전 2000년 이전의 단계에서는 중원과 라오허 일대 그리고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통을 가진 문명의 싹이 개별적으로 성립되고 발전하였다.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지역문명은 그 발전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 충돌하면서 상호 의존관계를 증대하여 갔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것은 중원의 문명이 다른 지역문명을 압도하면서 하 왕조와 같은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중원의 문명은 발전 과정에서 다른 지역문명의 우수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발전한 측면이 있지만, 하 이래의 왕조 국가가 탄생한 이후 중원은 다시 주변 지역을 향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국 중원 이외의 지역문명은 중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문명 발전의 궤도에 편입되었으며, 마침내 중국문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흡수되어 일체화되었다.

중원의 문명이 여러 지역문명 중에서도 중국문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환경과 기후변동 때문이다. 중원의 자연경관(景觀)은 다른 지역보다 다양해서 기원전 2500년경에는 한지(旱地)농업뿐만 아니라 수전(水田)경작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가축도 소와 돼지뿐 아니라 양까지 사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생산경제의 다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높은 적응력은 중원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취락의 입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원 지역의 취락은 보통

황토대지(臺地) 위에 형성되었는데, 황토대지는 지세가 높고 평탄하여 가뭄은 물론 수재(水災)의 영향도 덜 받았다.

중원의 끈질긴 생명력은 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주었다. 중원 밖에서도, 기원전 2500년경을 전후로 하여 다양한 직업과 계층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인구와 넓은 영역의 초기국가가 등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중원과 달리 생산경제의 단조로움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에 쉽게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기원전 2100년경을 전후로 하여 중국에 다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중원의 주변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독자적인 문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⁰⁾

제2단계 ‘공정’이 연구대상의 시공 범위를 좀 더 소급하고 확대한 것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새로운 출토 자료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근래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제1단계 연구의 시간 상한선인 기원전 2500년보다 더 앞서는 시기부터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판축 성곽이나 대형 제사유적 등 공공적 성격의 인공 구조물이 건설되었다. 이들 인공 구조물은 그 규모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대규모의 조직적 노동력과 잉여생산이 전제 되어야만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1단계 ‘공정’의 시간 범위 이전까지 소급되는 대형 유적은 중국문명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원전 2500년 이전부터 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부여하였다.

지역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형 인공 구조물은 황허강 중·하류의 중원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며, 다양한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랴오허강 유역의 뉴허량(牛河梁) 유적이나 양쯔강 하류의 량주(良渚) 유적 등은 그를 대표하는 것이며, 특히 전자의 연대는 기원전 3500년까지 소급된다. 이처럼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원과는 다른 양상의 지역문명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중국문명의 성립과 발전을 중원에 제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부족했다. 따라서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논의하자는 ‘공정’의 목적을 충실히 이

10) 袁靖, 「中華文明探源工程十年回顧: 中華文明起源與早期發展過程中的技術與生業研究」, 『南方文物』 2012(4), 5~12쪽.

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시공범위를 제1단계의 그것보다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구의 시공 대상을 확장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발전한 다양한 성격의 지역문명을 모두 중국문명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중국문명의 통합성과 일체성이 크게 희석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개별성과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면 중국에는 복수의 문명이 병립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중국문명을 복수의 단위로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비하여 준비된 장치가 바로 기원전 2000년을 경계로 한, 2개의 발전 단계 설정이다. 기원전 2000년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에는 복수의 지역문명이 성립하여 경쟁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중원의 문명만이 생존하여 결국 이곳에서 일원화된 통합체로서의 중국문명이 탄생하였다는 결론이 준비된 것이다.

4. 제3단계 연구

‘공정’은 ‘십일오’의 계속지원사업 선정되어 제2단계의 사업을 마친 다음, 2009년부터 국가문물국의 주도하에 제3단계 사업에 진입했다고 한다.¹¹⁾ 그렇지만 제3단계 사업이 공식적으로 발족된 것은 2011년이다. 그러므로 ‘공정’은 ‘십일오’의 후반기, 즉 2009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는 일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연구의 미진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공정’은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계획, 즉 ‘십이오(十二五)’ 기간에 다시 과기부의 지원 과제로 선정되었다. ‘십이오’ 기간 ‘공정’은 다시 전반기의 3단계와 후반기의 4단계 등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단계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단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되었다.

제3단계에 들어서도 주요 연구 수행 기관에 변화가 없고, 학제 간 연구를 표방하는 방침에도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정’은

11) 王巍·趙輝, 「關於中華文明探源工程」, 『中國文物信息網』 2012년 8월 1일. <http://www.kaogu.cn/cn/zhongdaketi/2013/1025/31399.html>.

제3단계에 접어들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준비와 그동안 조사된 문화재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이를테면 정리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단계 연구 발족식에서 ‘공정’ 전문가 그룹의 책임자이자 베이징대학 고고문박학원 원장인 자오후이(趙輝)는 3단계 사업의 전체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이미 상당히 양호한 학술적 업적을 이루었다. 중화문명 형성의 관건이 되는 시기, 형성의 원인과 메커니즘, 형성의 과정과 방식 등 중요한 이론적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약간의 핵심적 세부 내용, 예를 들면 기원전 4000년 이래의 사회형태, 기술, 생산 발전 수준 등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공정의 전개에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 단계(제3단계: 필자)에서는 중화문명 기원과 초기 발전에 관한 종합적 연구, 중화문명탐원공정 중 현대 과학기술 응용과 지원 연구, 문화재 보호와 전시에 관한 중요 기술 연구 등에 공정의 중점이 놓여질 것이다.¹²⁾

자오후이의 소개에 따라, 제3단계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공정’ 2단계가 연구의 시공을 크게 확장하는 데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면, 제3단계 이후에서도 일정한 방향의 전환을 볼 수 있다. ‘공정’ 제3단계 사업의 명칭, 즉 ‘중화문명탐원공정과 관련 문화재 보호기술 연구[中華文明探源工程及其相關文物保護技術研究]’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단계는 우선 이때까지 연구되어 온 중화문명탐원공정의 내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한편, 현대 과학기술을 통한 응용연구 및 문화재 보호 및 전시(展示)기술에 대한 연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왕웨이(王巍)는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의 방법, 수단, 이념 등을 확립하여 향후의 전체 고고학 연구를 위한 기반을 닦는 한편, 문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더욱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 3단계의 방향이라고 했다.¹³⁾

12) 『中國文化報』 2011년 5월 11일.

13) 王巍·林留根, 「21世紀中國考古學的若干特點及發展趨勢: 從“中華文明探源工程”說起-

제3단계는 ‘중화문명 기원과 초기 발전 종합 연구’, ‘중화문명탐원공정 중 현대 과학기술 응용과 지원 연구’, ‘문화재 보호와 전시 핵심기술 연구’ 등 3개 분야로 구성되고, 각 분야 아래에 다수의 세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아래의 3단계 세부과제 목록을 보면, 이 단계에 들어서는 중점적인 방향이 오히려 후 2자로 전환되어 가는 인상을 갖기에 충분하다.¹⁴⁾

- 1)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황허강, 양쯔강, 시라오허강(西遼河) 유역 고고학문화 연대 계보 보완 및 문명화 과정 중 중요 사건의 연대학 연구
- 2)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황허강, 양쯔강, 시라오허강 유역 인류와 자연 환경 관계 연구
- 3)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황허강, 양쯔강, 시라오허강 유역의 기술, 생업과 자원
- 4)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황허강, 양쯔강 유역 도읍성(都邑性) 취락 종합 연구
- 5)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황허강, 양쯔강, 시라오허강 유역 중요 구역 취락과 주민
- 6) 기원전 3500년~기원전 1500년, 황허강, 양쯔강, 시라오허강 유역 정신문화의 발전
- 7) 중화문명 탐원 연구 중의 원격탐지기술 응용 연구
- 8) 중화문명 탐원 연구 중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가상공간(VR)기술 응용 연구
- 9) 고고 발굴 현장의 문화재 이동 실험실 응용 및 지원 기술 연구
- 10) 실험고고학 및 고고 탐지 기술 시험장 초기 설계 연구
- 11) 중화문명 형성 및 초기 발전의 정체성(整體性) 연구
- 12) 출토 채색 토질 문화재 보호 핵심기술 연구
- 13) 출토 칼슘화 방직물 보호 핵심기술 연구

王巍所長專訪, 『東南文化』 2012(3), 10쪽.

14) 『中華文明探源工程及文物保護技術研究及各項目簡介』. <https://wenku.baidu.com/view/023a9e4233687e21af45a97c.html>.

- 14) 고대 간독(簡牘) 보호와 정리 연구
- 15) 진귀 문화재 보호 환경 통제 핵심기술 연구
- 16) 습윤환경 하(下) 고고 현장 사전토(史前土) 유적 보호 핵심기술 연구
- 17) 3D 및 체험형 전시에 기초한 문화재 데이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연구

제3단계 연구에 대한 중국 과기부의 사업성과 검수보고에서도, 제3단계 사업에서는 이전 단계에 진행된 중국문명 형성의 시간과 지역, 그리고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이외에도 중요 유적에 대한 각종 과학적 데이터의 수집 및 원격탐지, 지리정보시스템(GIS), 가상공간(VR) 등 각종 기술의 적용 및 표준화, 그리고 야외 발굴 현장에서의 실험실 운용 방안과 문화재 출토 현장의 환경 감측(監測) 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¹⁵⁾. 그러므로 제3단계의 초점은 이제 중국문명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순수한 의미의 연구에서 발굴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유적과 유물을 복원, 보호 및 관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연구성과를 대중적 전시나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바탕을 만드는 것, 즉 문화재 보존 및 선전 등 보다 사회적인 방향으로 점차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제4단계 연구

‘십이오’ 기간의 후반기에 들어 ‘공정’은 제4단계 연구에 돌입하였다. 제4단계 연구는 2013년 3월에 시작되어 2015년까지 진행되었다. 왕웨이에 의하면, 제4단계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 관점(觀點)을 정리하여 중화문명 기원의 각 단계와 그 연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 원인, 동력 등을 포함하는 이론화의 작업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것은 이미 3단계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과제였지

15) 「“十一五”國家科技支撐計劃項目“中華文明探源及其相關文物保護技術研究”通過驗收, 中華人民共和國科學技術部 홈페이지, 2013년 5월 2일. http://www.most.gov.cn/kjbgz/201305/t20130502_105634.htm.

만, 아무래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만큼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웨이(王웨이)는 “중화명명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그 특징 등에 대한 우리들(중국인: 역자)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4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중국학자들의 현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서적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¹⁶⁾ 지금까지 예에 관한 전문서적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Ⅲ. ‘공정’의 지향과 문제

1. ‘공정’의 주요 결론

2018년 5월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관공실(新聞辦公室)은 ‘공정’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에 끝난 프로젝트의 성과를 수년에 걸쳐 정리한 이후,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국가박물관 부국장인 관창(關強)은 사업의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였다.¹⁷⁾

① 중국의 5000년 문명을 고고학적 자료로 입증했다. 연구진은 지금부터 5800년 전을 전후해서 황허강, 양쯔강 중·하류, 시라오허 등지에서 문명 기원의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 5300년 전 이래, 중국의 각 지역은 계속해서 문명의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부터 3800년 전을 전후해서 중원 지역은 한층 성숙된 문명을 형성하고 사방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해 중화명명 전체 발전 과정의 핵심이 자리잡았다.

16) 「中華文明探源進第四階段 比較研究世界古老文明」, 『中國新聞網』 2013년 3월 4일.
<https://www.chinanews.com.cn/cul/2013/03-04/4613803.shtml>

17) 「“中華文明探源工程”成果公布 五千年文明絕非虛言」, 『科技日報』 2018년 5월 29일.
<http://culture.workercn.cn/32875/201805/29/180529080410762.shtml>

②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했다. 90여 년 동안 이어진 중국 야외 고고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정리와 여러 전공 분야의 합동 연구 끝에, ‘공정’ 연구팀은 사회 분업, 계급 분화, 중심도시와 강제적 권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문명사회에 진입하는 데 나타난 주요 특징을 보여주었다.

③ 중화문명의 다원일체형 구조가 형성된 데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공정’은 중화문명이 ‘다원일체, 관용성, 연속성(多元一體, 兼容并蓄, 綿延不斷)’이라는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다원일체의 문화 현상 이면에 있는 각 지역사회는 그 문명의 기원과 초기 발전 단계에서, 각자의 환경적 배경, 경제적 내용, 사회 운영 메커니즘 및 종교와 사회의식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존재하여 다원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수용하여, 결국에는 얼리터우문화로 대표되는 문명의 핵심으로 융합되어 하상주 3대 문명이 열리게 되었다. 중화문명의 기원과 초기 발전은 하나의 다원적인 과정이었다.

④ 중화문명은 발전 과정에서 외래문명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흡수하였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유래한 밀 재배기술과 황소, 면양 등 가축 사육, 청동 제련기술이 중화문명에 녹아들고 개조되면서 참신한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⑤ 중화문명이 기원과 초기 발전 단계에서 형성된 다원일체 구조와 수용·혁신능력은 이후 장기적인 성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속에서 공통된 문화축적, 심리적 공감, 예제(禮制)전통을 배태하여, 중화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2. ‘공정’의 지향

‘공정’이 제시한 이상의 주요 결론은 중국 각지가 지금부터 5300년 전 무렵 문명의 단계에 돌입하였으며(①), 중국의 각 지역에서 발생한 복수의

문명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증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문명을 성립시켰다.(③) 이 과정에서 중국문명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으며(④), 중국문명 성립 과정의 초기 단계에 나타난 수용과 혁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공통의 문화적 전통을 배태하고, 그것은 이후 중국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논점 가운데서 ‘공정’이 강조하고자 한 사항은 첫째, ‘5000년 중화문명’ 그리고 둘째 ‘다원 일체적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최초의 통사(通史)인 『사기(史記)』는 중국 고대의 역사를 오제(五帝)시대부터 서술하기 시작한다. 오제란 황제(黃帝), 전욱(顓頊), 계곡(帝嚳), 요(堯), 순(舜) 등 중국의 상고시기에 차례로 일어났다고 전하는 다섯 군주를 가리킨다. 오제의 뒤를 잇는 것은 중국의 초기 왕조국가인 하, 상, 주 삼대(三代)이다. 삼대에 관한 기술에 비하면, 오제에 대한 『사기』의 전승은 신화적인 기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간간히 인문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첫머리를 장식한 황제는 만청(晩淸)의 혁명파가 ‘국조’로 추앙한 이래 중국인의 ‘국조(國祖)’로 널리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황제 그 자체가 신화적 인물인 이상 그가 활약한 시기는 특정하는 것은 무용(無用)한 일이지만, 쑨원(孫文)이 중화민국 원년인 1912년을 황제기원(紀元) 4609년으로 정하면서, 황제의 ‘재세’ 시기는 대략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되었다.¹⁸⁾ 중국인들이 ‘중화문명 5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이다. 그렇지만 황제가 신화적 인물인 이상 그와 그가 세웠다고 전하는 국가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심지어 중국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뚜렷한 문명의 지표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하 왕조조차 중국 이외의 학계에서는 여전히 그 실존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¹⁹⁾

18) 이유진, 『한손엔 공자 한손엔 황제』, 글항아리, 2012, 79-83쪽.

19) 서양학계에서는 대체로 하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류리·천싱찬 지음, 김정열 옮김, 『중국고고학-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01~324쪽; Gideon Shelach-Lavi, *The Archaeology of Early*

20세기의 문턱에서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국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참으로 유구하고 찬란한 것이었으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품게 되었다. 구제강(顧頡剛)을 비롯한 이른바 ‘의고파(疑古派)’는 고대 전래문헌이 대부분 후대에 가공된 것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여 갔다. 안델슨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학문적 영역이었던 고고학을 이용하여 양사오문화의 채색토기[彩陶]가 서아시아에서 전파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노력하였다. 문헌자료나 물질문화의 양상 어디에서나 중국문화의 후기(後起)적이며 아류(亞流)적인 성격이 입증되는 듯이 보였다. 중국인들은 현실세계에서는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에서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1928년부터 허난성 안양시에서 시작된 은허 발굴은 이와 같은 중국 지성계의 비판적 흐름에 일대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곳에서 발견된 대형 유적과 갑골(甲骨),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문자는 문헌에 전하는 상왕조가 실제 존재하였으며, 그 왕조의 후대 도읍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다. 전설일 것이라 생각되던 상고시대의 역사가 가공이 아닌 실제일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은허에서 발견된 난숙한 청동기문화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도 안겨주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청동용기, 인간희생을 동반한 대형무덤, 여러 필의 말이 끄는 강력한 전차(戰車)는 은허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던가. 이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혹시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파되어 온 것은 아닌가? 중국의 초기 문명은 혹시 중국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은 아닐까?

은허에 필적하는 발견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속속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1953년과 1959년에 발견된 허난성 정저우(鄭州)의 정저우상청(鄭州商城) 유적과 허난성 옌스(偃師)의 얼리터우 유적이다. 문화층의 퇴적 상황 분석과 출토 유물의 유형 연구를 통해 얼리터우, 정저우상청, 은허는 대체로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문화임이 밝혀졌다. 얼리터

우와 정저우상청에서는 은허에서 그 최고의 경지를 볼 수 있는 청동용기와 희생을 수반한 대형 무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적잖이 출토하였다. 유적의 연대서열은 얼리터우, 정저우상청, 은허의 순임이 확인되었고, 은허는 상 왕조 후기의 왕도(王都)가 분명하였으므로, 학자들은 즉각 정저우는 상 왕조 전기의 도읍 가운데 어느 하나일 것이며, 얼리터우 유적은 상 왕조에 선행하는 하 왕조의 도읍이라는 견해가 점차 ‘상식화’되어 갔다. 은허에서 보는 상 왕조 후기의 문화적 성취는 그보다 6~700년을 계승하여 내려온 중국문화 고유의 결실임이 분명해졌으며, 하 왕조도 상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실존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1980년 이후에 들어 중국 고고학이 거두어들이던 현저한 성과는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수에 달하는 신석기시대 성곽을 찾아낸 것이다. 그 대다수는 기원전 3000년기 후반, 즉 신석기시대 후기에 건설되었는데 중원 지역에 분포한 것이 가장 많고 거대한 규모의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²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시성 상편현(襄汾縣)의 타오쓰 유적, 허난성 덩핑시(登封市)의 왕청강(王城崗) 유적, 신미시(新密市)의 신자이(新砦) 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타오쓰 등의 성곽 유적은 그 연대가 모두 얼리터우에 선행하였으므로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들이 얼리터우에 앞선 하 왕조의 어떤 한 도읍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의 정치적 중심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제 하 왕조를 뛰어넘어 전설처럼 전해오던 오제 이래 상고사의 틀이 점차 구상화되어 시야에 포착되어 왔다.

하상주단대공정은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던 상고사의 틀을 체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²¹⁾ 그것은 역사학, 천문학, 고고학과 탄소연대측정 등이 총동원된 국가 규모의 학제적 연구로서,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서주 공화 원년(기원전 841년) 이전 하상주 삼대의 절대연대를 복원하는 것

20) 김정열, 「얼리터우를 넘어서 - 중국의 국가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 -」, 『한국고고학보』 제60집, 2006.

21) 김경호, 「하상주단대공정의 실체와 반향」, 『하상주단대공정 -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을 목표로 하였다. 하상주단대공정은 얼리터우 유적과 그보다 약간 앞선 시대의 왕청강 유적을 하의 전, 후기 도읍이라 규정하고, 하 왕조의 성립 연대를 기원전 2070년경으로 못 박았다. 중국 고고학의 야외발굴 성과는 중국의 상고사를, 상 왕조를 뛰어넘어 하 왕조까지, 기원전 2000년기를 초월하여 기원전 3000년기까지 견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황제’의 시대인 기원전 3000년기의 중국문명을 사실을 입증한 것은 아니었다. ‘공정’은 이와 같은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당시의 문헌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상고사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고고학 이외에는 없다. 중국의 각종 고고학 자료에는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중국 각지에서 사회적 분열(계층화)이 진전되고 권력이 출현하였으며 그 정도가 점차 강화되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²²⁾ ‘공정’이 다루는 시간의 폭이 기원전 35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서 문명의 흔적을 확인하고 이것을 황제 이래의 오체에 동정(同定)하는 데 있다.²³⁾

때문에 ‘공정’은 기원전 3000년기를 전후하여 권력의 출현을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유적, 예컨대 량주(良渚)유적, 타오쓰 유적, 스마오(石峁) 유적 등 성지 유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이미 중국에 문명이 출현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²⁴⁾ 이를테면 이들 성지는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계층의 주택과 무덤에서 현저한 빈부 격차를 볼 수 있다. 각각의 성내에서는 귀족계층의 주택이 일반 평민 거주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토대 위에 세워지거나 담장으로 격리된 궁성(宮城)에 세워졌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뚜렷한 계층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고 통치자(왕)이 출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왕조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왕조 이전의 고국 문명 단계에 들어섰다.”

22) 王巍, 「追問中華文明五千年 探源工程十年回顧」, 『聚集』 2012(4), 28-33쪽.

23) 박양진, 「중화문명탐원공정과 고고학문화 계보 연대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08.

24) 李韻, 「探源工程實證中華大地五千年文明」, 『大眾考古』 2018(6), 94-95쪽.

이와 같은 주장은 기원전 3000년기의 유적을 통해 이 시기에 초기 단계의 국가가 등장하였음을 입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 왕조 이전의 오제시대가 역사적으로 실재하였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미 타오쓰 유적이 요(堯)의 도읍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국학계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공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²⁵⁾

1988년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은 홍콩에서 개최된 테너(Tanner) 강연에서 중화민족은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11억 인민을 지칭하며, 여기에 포함된 50개가 넘는 민족 단위는 다원(多元)이고, 중화민족은 일체(一體)”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중국에 현존하는 56개의 민족은 비록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낮은 단계[層次]의 민족일 뿐이고 중화민족이야말로 높은 단계의 민족인데, 분산·고립적으로 존재한 낮은 단계의 ‘민족’들이 수천 년에 걸친 접촉과 융합을 통해 높은 단계의 ‘일체’인 중화민족을 형성하였으며, 그 ‘일체’의 지리적 범위는 대체로 현재의 중국 영토와 일치한다는 해설을 덧붙였다.²⁶⁾

페이샤오통의 요지는 이른바 ‘중화민족’이 허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그의 논리는 ‘통일다민족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교과서적인 민족이론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페이샤오통의 이 ‘중화민족론’이 고고학자 쑤빙치의 저 유명한 ‘문화구계유형론’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쑤빙치는 당초 중국 신석기문화를 몇 개의 지역적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문화구계유형론’을 제창하였다. 그가 말하는 ‘문화구’는 특정한 문화가 분포하는 일정한 구역을, ‘계’는 그 구역에서의 문화 발전과 계승의 맥락을, 그리고 ‘유형’은 각 문화의 하위 유형[分枝]을 가리킨다. 그는 중국 신석기문화는, 다양한 자연환경 하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성립한 적어도 여섯 개의 문화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25) 解希恭, 「陶寺考古的回顧與思考」, 解希恭 主編, 『襄汾陶寺遺址研究』, 科學出版社, 2007, 9-17쪽.

26) 費孝通, 「導論」, 費孝通 撰,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면서 발전해 갔다고 주장하였다.²⁷⁾

중국 고고학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쑤빙치의 논단(論斷)은 당시의 학계를 풍미한 ‘중원선진론(中原先進論)’에 대한 본격적 도전의 서막이었지만, 사실 이런 주장이 그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1968년에 장광즈(張光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 신석기문화는 기원전 7000년 이래 중국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차 독특한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지역문화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기원전 4000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연쇄적 문화교류를 시작하여 하나의 문화 ‘상호작용권(sphere of interaction)’ 혹은 ‘지역공동전통(area cotradition)’이라 불릴만한 것을 형성하였다. 장광즈는 이 상호작용의 지역 범위가 북쪽의 라오허 유역에서 남쪽의 타이완과 주장(珠江) 삼각주까지, 동쪽의 황해 해안에서 서쪽의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쓰촨(四川)까지에 달하며, 그 범위는 현재의 중국 내지(內地)와 대개 비슷하므로 ‘중국상호작용권’, ‘중국선사상호작용권’이라 명명해도 좋을 것이라 했다.²⁸⁾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나온 중국의 정국이 점차 안정되고, 소수민족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소수민족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한족 위주의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하던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함께 각 민족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학문내적으로는 고고학적 야외조사가 급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총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연과학적 방법의 연대측정자료가 속속 공표되면서 중국 각지의 유적과 유물이 가지고 있는 시간상의 위치도 점차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문화의 변경지대로 이해되어 왔던 주변지역의 선사문화가 그 시간적 위치나 도달한 수준에서 ‘중원’의 그것에 전혀 뒤질 것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건국 초기 중국 정부가 추진했던 민족융합정책의 부활은 민족 통합을

27) 蘇秉琦·殷璋璋, 앞의 논문, 10~17쪽.

28) 張光直,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中國考古學論文集』, 三聯書店, 1999.

위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요구하였다. 시대적 요청과 고고학계가 새로 획득된 지견(知見)은 쑤빙치로 하여금 장광즈의 견해에 다시 주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쑤빙치의 뉘앙스는 장광즈와 약간 달랐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그 다원적 인식의 목표가 ‘역사의 진면목을 복원’하는 데 있다고 하였지만, 그가 말하는 역사의 진면목 복원은 다양한 지역 신석기문화의 존재와 그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쑤빙치는 양사오문화(仰韶文化)와 홍산문화(紅山文化)의 교류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글에서, 화산 일대에서 복상한 양사오문화 마오디거우(廟底溝) 유형과 다령허(大凌河)에서 남하한 홍산문화 홍산허우(紅山後) 유형이 접촉함으로써 홍산문화의 ‘문명’ 행이 촉발되었으며, 그것이 이윽고 ‘중화적’인 전통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⁹⁾ 현재의 중국 안에는 아주 먼 옛날부터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존재하였지만, 그들은 분열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호관계 하에서 정합적(整合的)인 ‘일체’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이 중국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간 원동력이었다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공정’의 또 하나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여기에 약간의 교정을 더하는 데 있다. 확인이라 하는 것은 기원전 3000년경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문명’은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중국의 문명을 발전시켜 갔다는 쑤빙치 이래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이라 하는 것은,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기원전 2000년경을 경계로 하여 돌연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원 지역은 발전을 계속하여 이후 중화문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⁰⁾ 이것은 다원이면서도 일체인, 그리고 중원에서 발달한 한쪽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명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의 지향은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첫째, 근대 서구열강의 침략 아래 짓밟힌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중국의 문명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 역사상을 사실로 확인함으로써 중국인의 자

29) 蘇秉琦, 『華人, 龍的傳人, 中國人-考古尋根記』, 遼寧大學出版社, 1994.

30) 趙輝, 「“多元一體”一個關於中華文明特徵的根本認識」, 『聚集』 2012(4), 47-51쪽.

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인 셈이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함으로써 전통적 대국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지향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두 번째의 목표는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통합이다. 물론 통합의 중심점은 한족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56개의 ‘공인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전통의 화이관(華夷觀)을 포기하고 성립된 현재의 중국은 복잡하고 다양한 종족적 기원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복수의 집단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재통합해야 했다. 현대의 중국에는, 특히 한족의 외연에 펼쳐진, 소수이지만 경제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소수 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절실하다.³¹⁾ ‘한족을 중심으로 한 다원일체의 중국’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사실로 입증하고자 한 ‘공정’의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공정’의 결론은 중국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기획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³²⁾

‘공정’의 성과가 대중에게 즉각 주입되도록 기획된 것은 그와 같은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공정’의 연구성과를 청년층에게 더 잘 보급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교육부의 선지량(申繼亮) 교재국 순시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는 ‘공정’의 성과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했고, 그 내용은 ① ‘공정’의 새로운 성과에 따른 지식 보완, ② ‘공정’의 새로운 성과에 따른 교과서 갱신, ③ ‘공정’의 새로운 성과에 따른 기술 세분화, ④ ‘공정’의 새로운 성과에 따른 교과서 갱신 등이다.” 현재 중등학교 교과서는 이미 수정됐고, 대학교 역사 필수 교과서는 중국사에 관한 부분은 이미 집필되었으며, 대

31) 西村成雄, 「20世紀中國における「國民國家」と社會主義」, 歴史學研究會 편, 『國民國家を問う』, 青木書店, 1994.

32) 최근의 비약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전통적 역사상에 대한 긍정을 통해 기획하려는 사회적 지향점과, 국가 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이념을 역사에서 찾고자 하는 의도가 ‘공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는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인갑, 앞의 논문, 2008, 269~298쪽.

학의 고고학개론 교재도 조정된 상태다.³³⁾

3. ‘공정’의 문제

‘공정’이 이 사업의 주요 수행 학과인 고고학의 학문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공정’을 통해 주로 기원전 3000년기의 대형 유적이 정밀하게 재조사됨으로써 타오쓰, 량주, 왕청강, 스마오 유적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연대측정을 비롯한 환경, 생업, 교류 등의 분야에서 과학적 수단이 적극 도입됨으로써 중국문명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선사시대의 사회 발전 양상이 좀 더 뚜렷한 모습으로 소묘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고고학이 ‘공정’을 계기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전체에서부터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정’이 중국문명의 성립과 발전을 일련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명’이란 어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류가 달성한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진보의 상태를 널리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 ‘문명’은 대체로 인류 사회가 도달한 특정한 진보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 의미를 가지며, 그 기준으로는 청동기, 문자, 도시, 특히 국가 출현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³⁴⁾ 즉 어떤 사회에 국가가 출현하면 비로소 그 사회가 ‘문명’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회가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물질적, 정신적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정’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단계’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

33) 「重大科研項目“探源工程”成果發表表」, 『搜狐』 2018년 5월 29일. https://www.sohu.com/a/233254300_151247.

34) 류리·천싱찬 지음, 김정열 옮김, 『중국고고학-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02~303쪽.

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원(探源)’이라는 사업 명칭에서부터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일면 타당한 논리이다. 그러나 중국적 상황에서 보면 여기에는 약간의 복선이 깔려 있다.

중국의 전래문헌에는 하 왕조 이전에 ‘오제’가 통치하던 국가시기가 있으며, 이것은 종전까지 전설의 시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얼티어우 유적으로 대표되는 하 왕조가 기원전 2000년경에 실제로 출현했다면 그 이전의 시기는 대개 오제의 시대이고, 하 왕조가 문명의 성립 ‘시점’이라면 그 이전의 문명을 향한 성립 ‘시기’는 바로 오제의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 그 성립 시기를 대표하는 일련의 유적들은 오제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문명의 성립 ‘과정’을 매개로 하여 전설상의 오제를 역사적인 인물로 치환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결국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하 이전에 일정한 시기의 ‘문명성립기’를 설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중국문명의 탄생을 하 왕조보다 1000년가량 소급한 뒤, 이것을 통해 이른바 5000년 중화문명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중국 고고학이 문헌 전승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고고학적 자료를 문헌 기록을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물질문화를 종합적으로 복원하고 그 발전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소홀하였음은 물론 이 방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였다는 서구학계의 비판이 있다.³⁵⁾ 중국 고고학의 이와 같은 역사지향적 성격은 중국이 이 분야의 학문에서 쌓아온 나름의 전통이며, 그것이 고고학의 금기라고 할 수도 없다. 또 탕지건이 애써 변명하였듯이 중국의 고고학자 모두가 문헌 기록에 맞춰 출토 자료를 배열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³⁶⁾ 그러나 중국 고고학의 역사지향적인 성격이 문헌기록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넘어, 역사기록의 입증을 지상과제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고학의 고유한 학문적 영역과 기여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쉽게도 ‘공정’은

35) Lothar von Falkenhausen, 陳淳 역, 「論中國考古學的編史傾向」, 『文物世界』 1995(2), 88-89쪽.

36) 唐際根, 「考古學·民族主義·證史傾向-《劍橋中國史·商代考古》提出的問題」,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夏商周考古研究室 編, 『三代考古』 一, 科學出版社, 2005.

문명 개념의 조작을 통해 오제와 5000년 중화문명을 입증하려 하였다.

둘째는 위와 관련된 것인데, 중국 전래문헌에서 전하는 설화의 신뢰성에 대한 재평가이다. 예를 들어, 신자이 유적을 하 왕조의 군주 계(啓)의 통치 중심지라 하고, 기원전 21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에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였음을 밝혀 이것을 중국의 고대 문헌에 보이는 우(禹)의 치수설화와 연결시키는 것이나,³⁷⁾ 타오쓰 유적에서 발견된 반원형의 제단이 천문현상 관측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것은 우보다 앞선 전설상의 군주 요의 행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⁸⁾.

‘공정’이 지금까지 신화로 해석되어 온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군주에 대한 전승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의 전래문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생각이 저변에 놓여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공정’은 전래문헌을 의고의 시각이 아니라 신고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중국 지성계 최근 동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화를 역사로 치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시대착오적 년센스에 불과하다.

셋째는 다원일체적 문명 발전론이다. 인접한 지역의 문화 사이에 교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상호 영향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인접 지역의 문화 간에는 각자의 고유의 특징은 물론 공통의 속성 또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한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은 인접 제 문화의 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쑤빙치류의 ‘다원일체적’ 문화 이해는 결론을 전제로 한 증거 찾기로 흐를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쑤빙치와 그의 계승자들은 홍산문화에 보이는 채색 토기와 홍정완(紅頂碗) 등에 초점

37) 沈長雲, 「再論禹治洪水兼給夏史諸問題」, 中國社會科學網, 2016년 11월 8일. http://lcl.cssn.cn/lsw/slcz/201611/t20161108_3267654.shtml.

38) 『상서(尙書)』 요전(堯典)에 “관상수시(觀象授時)”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것은 “천문 현상을 보고 농경에 필요한 절기를 정하여 알렸다”는 의미이다. 이 기록이 요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국 고대의 전설적 군주 요 임금과 천문 관측을 연계하는 것이다.

을 맞추어 양사오문화와 홍산문화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홍산문화의 제단, 여신묘, 옥기 등이 중원문화에 영향을 주어 중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수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홍산문화의 토기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 취사기인 압인 지자문(之字形) 통형관은 중원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돌로 쌓아 만든 제단이나 무덤, 신상을 모신 사당, 그리고 ‘옥저룡(玉猪龍)’ 등으로 대표되는 옥제 장신구 등은 결코 중원지역의 문화 전통으로 회합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사 이래 중원 지역과 주변 지역의 문화 사이에 공동의 요소가 다소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중국의 영역 내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정합적 일체’상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원일체적 발전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지역문명 사이의 교류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명 발전에서 기여한 작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의 연구성과는 지역문명 간의 교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것의 역할과 결과,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쭈빙치처럼 현재의 중국만을 ‘일체’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영토에 제한하여 지역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결론은 결국 중국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선형적 논리구조로 수렴될 것이다. 중국의 영토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현재의 중국 영토는 대체로 청대에 들어 형성되었다는 자명한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

IV. 맺음말

이상에서 ‘공정’의 주요 연구 내용과 각 단계별의 변화, 그리고 그 지향점과 거기에 내포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공정’은 중국문명의 기원과 성립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목표 하에 시작되었다. ‘공정’은 예비연구와 제1단계에서 기원전 2500년~기원전 1500년 사이의 중원을 대상으로,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가 등장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어

제2단계에서는 그 시공의 폭을 확장하여 기원전 3500년~기원전 2500년 기간의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성장한 지역문명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이 중국문명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3단계부터는 연구의 초점에 변화가 생겨 ‘공정’ 본래의 연구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선전 나아가 연구결과의 체계화,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공정’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원전 3500년경부터 중원은 물론 북방의 라오허 일대와 남방의 양쯔강 중·하류 일원에 걸치는 넓은 지역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계층화된 사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 무렵부터 각 지역에 분업화, 계층화에 기반을 두고 상당한 규모의 영역과 인구를 통치하는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지역에서 등장한 문명은 경쟁과 교류를 통해 자국을 받으면서 일제히 성장해 나갔지만 모두가 순조로운 발전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중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문명은 단조로운 생업방식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2000년경을 전후하여 밀어닥친 이상기후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락하였다. 반면 기원전 2500년부터 다양한 생업방식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생존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중원은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결국 최초의 국가를 탄생시킴으로써 중국문명을 또 다른 단계로 끌어올렸다. 결국 중국 각지에서 등장한 문명은 중국문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수렴되었으며, 이 일체화된 중국문명은 다시 각 지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공정’의 논의는 5000년 중국문명을 전설에서 사실로 변모시키고, 다민족국가 중국의 기원을 초기 문명 성립기까지 끌어올리며, 한족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국가의 통합과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공정’은 그런 의미에서 고고학 연구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중국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이 말하고자 하는 중국문명의 ‘유구함’과 ‘다원일체’는 사실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공정’의 시작 단계부터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 ‘공정’을 이끈 왕웨이(王巍)는 일찍이 ‘공정’의 사업 구상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국 고대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밝히는 일은 황제·염제시기부터 하상주 시대의 문화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탐색하여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민족 전통문화를 선양하며,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³⁹⁾.

여기에서 말하는 ‘황제와 염제시기부터’는 바로 중국의 전설적 군주인 오제와 그들이 활약했던 시대의 첫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문명의 기원을 하 왕조보다 앞선 기원전 3000년경까지 소급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하는 일은 바로 중국문명이 ‘다원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결국 ‘일체화’되었으며, 그 시기는 일찍이 기원전 3000년경까지 소급된다는 논단의 또 다른 말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공정은 이미 시작 단계부터 그 결론을 예비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은 중국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선양하고 동시에 민족일체감을 촉진하려는 다분히 학문외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미국과 함께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 중국은 이제 그 역사적 질곡과 태생적 분열성을 극복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공정’ 역시 순수한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그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중국 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되돌려주고, 중국 민족은 머나먼 과거부터 ‘일체’로서 형성된 것이며, 그 유서깊은 전통에 비례하여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공정’의 연구결과로 포장되었으나 사실은 선형적으로 정의된 것이며, ‘공정’은 그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유포목적적으로 시작된 ‘공정’의 학술적 가치는 어떨까? ‘공정’은 문명을 논하면서도 ‘문명’의 개념을 혼돈으로 몰아넣어 중국문명이

39) 王巍, 「關於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的構想」, 『光明日報』2003년 3월 31일.

세계 유수의 고대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때⁴⁰)에 수립된 것으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현 중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다원적으로 기원한 지역문명은 일찍부터 ‘숙명적’으로 일체화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역문명이 하나의 중국으로 귀결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공정’은 그 예정된 결론으로 인해 학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학문외적인 지향으로 인해 ‘왜곡’을 동반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공정’의 연구성과와 그것이 지향하는 바, 그 의미와 한계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공정’은 타국에서 진행되는 아득히 먼 과거를 연구하는 학술적인 탐색이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자칫하면 배타적이며 공격적인 민족관과 역사관을 배양하고 증식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기(銘記)해야 한다.

40)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에, 나일강 문명은 기원전 2800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호, 「하상주단대공정의 실체와 반향」, 『하상주단대공정 -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정열, 「얼리터우를 넘어서 - 중국의 국가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 『한국고고학보』 제60집, 2006.
- 류리·천성찬 지음, 김정열 옮김, 『중국고고학 -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박양진 등,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박양진, 「중화문명탐원공정'과 고고학문화 계보 연대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중국 문명 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08.
- _____, 「중국 역사공정의 비판적 검토 - 하상주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82, 2008.
- 이유진, 『한손엔 공자 한손엔 황제』, 글항아리, 2012.
- 전인갑, 「현대 중국의 지식 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역사비평』 82, 2008.
- 정원철,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 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 唐際根, 「考古學·民族主義·證史傾向-《劍橋中國史·商代考古》提出的問題」,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夏商周考古研究室 編, 『三代考古』 一, 科學出版社, 2005.
- 李韻, 「探源工程實證中華大地五千年文明」, 『大眾考古』 2018(6).
- 費孝通, 「導論」, 費孝通 編,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 蘇秉琦, 『華人, 龍的傳人, 中國人-考古尋根記』, 遼寧大學出版社, 1994.
- 蘇秉琦·殷璋璋,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 王巍, 「追問中華文明五千年 探源工程十年回顧」, 『聚集』 2012(4).
- 王巍·林留根, 「21世紀中國考古學的若干特點及發展趨勢: 從“中華文明探源工程”說起-王巍所長專訪」, 『東南文化』 2012(3).
- 袁靖, 「中華文明探源工程十年回顧: 中華文明起源與早期發展過程中的技術與生業研究」, 『南方文物』 2012(4),

張光直,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中國考古學論文集』, 三聯書店, 1999.

趙輝, 「“多元一體”一個關於中華文明特徵的根本認識」, 『聚集』 2012(4).

解希恭, 「陶寺考古的回顧與思考」, 解希恭 主編, 『襄汾陶寺遺址研究』, 科學出版社, 2007.

西村成雄, 「20世紀中國における「國民國家」と社會主義」, 歷史學研究會 編, 『國民國家を問う』,
青木書店, 1994.

Gideon Shelach-Lavi, *The Archaeology of Early China-from Prehistory to the Han Dynasty*,
Cambridge Univ. Press, 2015

Lothar von Falkenhausen, 陳淳 譯, 「論中國考古學的編史傾向」, 『文物世界』 1995(2).

<Abstrac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to Trace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Kim, Jung-ryol

Project to trace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中華文明探源工程, zhōnghuá wénmíng tànyuán gōngchéng), a long-term trans-disciplinary program that has received the support of national research funding programs, was conducted over 15 years from 2001 to 2015. The project was carried out to explore when, where, and how Chinese civilization originated and developed, leading to the early dynastic countries. Although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was interested in the project's contents from an early phase, it was generally a somewhat biased and narrow view of the "History War" between China and Korea.

The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project, its overall content, and its primary orienta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was revealed: This project was an academic project promoted by China, which has emerged as a superpower in the 21st century to overcome historical hardships and inherent division since modern times. It also aimed to justify the integration of a multi-ethnic state centered on the Han Chinese (汉族, Hànzú) and the rule of the Han Chines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ject, which started for this purpose, has various academic problems due to its inherent limitations a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istorting" the past due to its non-academic orientation.

Keywords: Project to trace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China, Civilization, Archaeology, Chinese nation, Diversity in unity, Huangdi, Early State